

같이 보기

: 중장년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충북산업보건센터 진천군 중장년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글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는 4월 28일 2022년 진천군 중·장년층(40~50대) 남성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인지행동 심리극 브이알 헬스케어(VR Health Care)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김철한 센터장 및 (주)마인드브이알 이대엽 대표, 진천군보건소 김민기 소장,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 류혜선 센터장, 진천지역자활센터 신성철 센터장, 진천군가족센터 손광영 센터장이 참여했다.



브이알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통하여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 자신의 고민이나 우울함의 원인을 직접 설명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바깥세상에 나올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살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장년층의 자살 시도율이 많이 늘었다. 여성 또는 젊은 연령대에서는 그나마 자신의 상황을 대화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표출하는데 반하여 중년 남성은 과묵하고 표현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어려워해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도 멘정신이 아닌, 술에 의존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변인들이 당사자를 더욱 외면하게 만들어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중·장년 남성이 과묵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남성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술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임, 공예 모임, 봉사 모임 등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성공적인 자살 예방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적합한 사업이 브이알 헬스케어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들은 중·장년 남성의 높은 자살 사망률을 적극적으로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센터장은 “사회와 가정에서 기동 역할을 하는 중년 남성은 자신의 고민이 가족과 사회에 짐이 되는 게 무서워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 기술을 통해서 중·장년 남성들이 가상현실 공간을 대나무숲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다양한 고민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